

#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 Children's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강 민 주  
Kang, Min Ju  
전 경 숙\*\*  
Jeun, Kyung So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elf-confidence in children by grade, sex, and other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36 third-graders, 143 sixth-graders, and 161 eighth-graders in public schools located in Pusan. Instruments were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and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 The SSAS is a 31-item measure that taps children's perception of family, peer, and teacher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ile,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1) children in 6th and 8th grades perceived higher peer support than children in 3rd grade, (2) except for social acceptance, the children in higher grades perceived themselves lower in self-competence than the children in lower grades, (3)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and (4)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children's self-perception were, in descending order: socioeconomic status( $\beta=.52$ ), age( $\beta=.21$ ), social support( $\beta=.10$ ). These three variables explained 38% of the children's self-perceptio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사회적 환경에 접하게 되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상들을 해석하고 개념화 하며 예언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주변 사

---

\* 본 논문은 1993년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상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들은 가족, 또래,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아동의 자아기술(self descrip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Harter, 1988).

한 인간이 자신을 평가하는데에는 타인의 의견에 주로 근거를 두지만, 개인의 주체의식은 그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아에 대한 판단은 타인과의 관계가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이 된다(Harter, 1988). 이와같이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대인관계는 그들사이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으며(East & Rook, 1992; Parkerhurst & Asher, 1992), 아동기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여러가지 상황 즉 가족, 학교, 또래집단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Reid, Landesman, Treder, & Jaccard, 1989).

사회적 지지는 크게 사회학적 견해와 심리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개념화 되었는데 학자들(Cohen & Wills, 1985)은 개념적 측정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좀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능률성이란 개체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White, 1959)이며,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된다는 정보가 자신의 가치와 경험의 인정을 통해 자기능력의 지각도 또한 달라지게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 관심이 되는 문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바람직한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써

한 개인이 이러한 자원의 인식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적응을 돕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극복케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지의 어느 차원이 아동의 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되는지를 조사하고 지지의 다양한 차원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아동과 관련된 성인 즉 교사와 가족 그리고 또래 관계의 만족할만 지지는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부모 교사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의 문제

1.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 및 자기능력지각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사회적 지지 및 아동배경변인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관련 변인

1970년대 중반에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건강의 유지나 신체적 질병, 심리적 증상의 병인과

관련하여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온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2가지 측면은 첫째 그 개념적 근원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둘째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양혜정, 1992).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사회적 지지 개념은 Maslow 욕구 계층의 세번째에 해당되는 사회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적 욕구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데서 발생하는 기본적 욕구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질 수 있다. 이때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이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장인규, 1990).

Cobb(1976)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인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포함시켰다. Dubow 와 Ullman(1989)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Cobb (1976)의 개념을 기초로 아동이 부모, 또래, 교사로 부터 받는 존경지지를 평가하는 31항목의 자기 보고식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아동들이 존중감이나 실제적인 도움, 정보원조와 같이 사회적 지지구조를 관계망의 성원들이 제공하는 행동의 형태에 의해서 조직하는것이 아니라 가족, 또래, 가족이 아닌 성인등 지지의 자원에 따라 조직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Dubow & Ullman, 1989; Wolchick, Beals, & Sandler, 1989).

한편 사회적 지지는 안정된 대인관계가 적용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두가지 가설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안정감,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적용을 향상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충효과가설(buffering effect hypothesis)로서 부정적 경험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위해적 영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완충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관심을 갖는다. 부적응이나 곤란에 처했을때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고 부족한 자원을 제공받게 되면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여러가지 현상이 감소한다고 본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가설은 대인관계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즉, 개인은 안정된 대인관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통제감의 경험은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Thompson, 1981).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느냐 혹은 주효과만을 하느냐 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과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갖는다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갖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뜻이므로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예방과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주효과를 가질 경우 부적응현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제

공하면 지각이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부적응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송주미, 1992).

따라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되는지를 조사해보고 지지의 다양한 차원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또래, 교사의 세 지지차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자기능력지각의 개념 및 관련 변인

자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자아 개념이나 자존감 등의 자아의 평가적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자존감(Coopersmith, 1967), 자아개념(Wylie, 1979), 자아효율성(Bandura, 1981), 자기능력지각(Harter, 1982) 등의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여러학자들(Cause, 1987; Harter, 1982, 1983, 1988; Kagan et al., 1982)은 자아평가에 대해 전통적 단일차원 개념의 척도에 반대하면서 아동의 자아평가는 영역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Harter(1982)는 아동들이 모든 숙련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똑같이 유능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Harter(1982)는 아동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의 분화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havelson(1976) 등은 일반적 자아개념을 상위의 구조에 놓고 이를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

문적 자아 개념으로 나누어 다시 그 아래 각각 세부적인 하위 영역을 갖춘 자아개념의 다차원적 위계구조를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하에 Marsh(1983, 1984, 1985) 등은 자아기술 질문지(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송인섭(1982)이 다차원성에 기초한 검사를 개발하여 연구한 바 있다.

자아를 정의하는 속성과 개념적으로 조직된 정도 및 자아를 정의하는 기준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화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아동은 인지 발달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아개념을 구성해 나간다. 또한 아동의 성숙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과 부모, 또래 등 중요한 他者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기술(self-descrip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Harter, 1988).

자아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 역시 아동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점점 더 정확히 판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Harter, 1982).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 1989; 이은해·최혜영·김미해, 1990; 정순지, 1990).

한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주로 부모와 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Brookover, Erikson 그리고 Joiner(1967)는 7-1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의 평가가 학문적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7, 8, 9, 10학년에서는 부모의 평가가 친구의 평가보다 학문적

자아개념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12학년은 부모보다 친구의 평가가 학문적 자아개념과 더 높은 관련을 보임으로써 학년 수준이 높아갈수록 자아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교사의 평가보다도 부모의 평가가 학문적 자아개념과 더 높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 3.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하여 Sandler (1989) 등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관계에서의 방어,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하는 감각등의 세 가지 중재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다. 또 몇몇 학자(Dubow & Tisak, 1989; Dubow et al, 1990; Harter, 1985)들은 아동의 존중감과 유능감을 높여주는 변인으로 또래지지의 역할을 언급했으며, Hoffman, Ushpiz 그리고 Levy-Shiff(1988)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동료지지는 어머니의 지지가 결여되었을때만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Cauce, Felner 그리고 Primavera(1982)는 가족지지가 더 높은 학문적 자아개념에 관련된 반면, 또래지지는 더 높은 또래자아개념에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Cauce 와 Strebrik(1989)는 가족 지지가 또래지지보다 능력에 대한 지각에 더욱 지속적인 관련을 보인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아마도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에게 아직까지 의존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지지기능의 더욱 넓은 범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대체지지에 관해 연구한 최용주(1993)는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이 낮게 인식하는 아동

보다 자기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자기능력지각과 많은 관련이 보이고 있는 반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중요타인들의 지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위치한 2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의 3학년, 6학년, 중 2학년의 각 학년당 4학급씩으로 총 12개 학급의 아동과 부모들이다.

이들중 최종 대상자는 국 3학년 136명, 국 6학년 143명, 중 2학년 161명으로 총 440명 아동이었다.

이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아동용 부모용으로 나누어졌다. 부모에게는 가정환경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배경변인을 조사하였고 아동에게는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와 자기능력 지각도구를 사용하였다.

#### 가. 아동의 사회적 지지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 (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강성희(1991)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이나 또래 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40)

배경변인	구 분	빈도(%)
성 별	남	220(50.0)
	여	220(50.0)
학 년	국 3	136(30.9)
	국 6	143(32.5)
	중 2	161(36.6)
父 직업	무직	8( 1.8)
	비숙련직	56(12.7)
	판매 및 숙련직	212(48.2)
	사무직	92(20.7)
	관리직	69(15.7)
	전문직	4( .9)
수 입	50미만	19( 4.3)
	51-99만원	148(33.6)
	100-149만원	159(36.1)
	150-199만원	63(14.3)
	200-249만원	26( 5.9)
	250-299만원	10( 2.3)
	300만원 이상	15( 3.4)
父 교육수준	국 졸	31( 7.0)
	중 졸	80(18.2)
	고 졸	230(52.3)
	전문대졸	24( 5.5)
	대 졸	65(14.8)
	대학원졸	10( 2.3)

사의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의 문항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Cobb(197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는데 아동들이 사랑받고, 관심 있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 항목의 내용은 Cohen과 Wills

(1985)의 존경지지 기능과도 일치한다. 각 항목은 Harter(1985)가 제안한 “양자택일적인 구조(structure alternative choice)”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 전체점수의 합은 31점에서 124점까지이다. 31개 항목에 대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조사한 결과 .87로 나타났다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0-.77로 나타났다. 이 도구에 대한 내용검토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동료 3인, 담당교수, 일선 학교 교사의 자문을 구하였다.

#### 나.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 1985)의 자아개념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생활영역인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영역의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self-worth) 1개 영역의 총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아동의 실제의 능력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각 항목은 1-4점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36점에서 144점 까지이다. 본 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89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73-.84로 나타났다.

본 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Harter(1982, 1985)가 평균 요인부하량 .28-.81로 보고하고 있으며, 백영실(1992)은 .36-.83로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동료 3인과 담당교수, 일선 교사의 자문을 구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한 다음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주효과에 관한 한 추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단순 주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과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 검증

가.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검증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source	df	MS	SS	F
또래지지	연 령	2	196.08	392.16	11.06***
	성	1	57.10	57.10	3.22
	연령×성	2	34.98	69.97	1.97
	오 차	434	17.73	7695.03	
가족지지	연 령	2	232.10	464.21	9.051***
	성	1	3.60	3.60	.140
	연령×성	2	27.50	55.02	1.073
	오 차	434	25.64	11129.08	
교사지지	연 령	2	35.52	71.04	1.71
	성	1	4.65	4.65	.22
	연령×성	2	27.95	55.90	1.35
	오 차	434	20.75	9006.22	

\*\*\*p<.001

〈표 2〉의 결과를 살펴 본 결과 또래지지와 가족지지에서는 연령에 대해 주효과가 나타났다. 주효과 검증에 대한 연령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지지는 연령집단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F=11.06, p<.001)를 보이는데 Scheffé의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래지지의 지각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즉 국민학교 3학년 아동보다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이 또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도 연령에 따라 의미있

는 차이( $F=9.06, p<.001$ )를 보이는데 Scheffé의 추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민학교 6학년에서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3학년 순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차이검증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능력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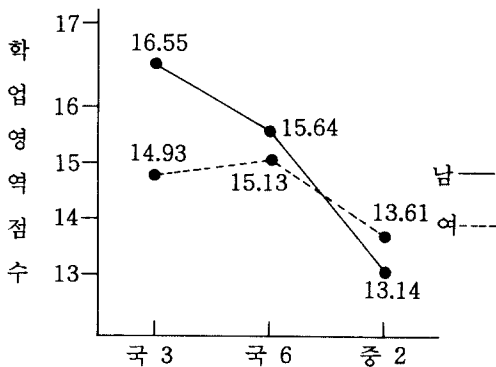
	source	df	MS	SS	F
학업영역	연 령	2	242.07	484.13	22.43***
	성	1	26.81	26.81	2.48
	연령×성	2	39.69	79.38	3.68*
	오 차	434	10.79	4683.08	
사회적영역	연 령	2	16.19	32.38	1.09
	성	1	14.76	14.76	.99
	연령×성	2	35.60	371.20	2.40
	오 차	434	14.81	6427.14	
운동적영역	연 령	2	132.62	265.24	8.02***
	성	1	31.09	31.09	1.89
	연령×성	2	18.02	36.03	1.10
	오 차	434	16.43	7130.44	
신체적영역	연 령	2	126.01	252.02	10.02***
	성	1	.59	.59	.05
	연령×성	2	6.52	13.03	.52
	오 차	434	12.58	5458.68	
행동적영역	연 령	2	30.71	61.42	3.69*
	성	1	7.07	7.07	.85
	연령×성	2	1.14	2.27	14
	오 차	434	12.58	3613.93	
전반적 자아가치	연 령	2	101.67	203.34	9.69***
	성	1	13.62	13.64	1.30
	연령×성	2	13.81	27.62	1.32
	오 차	434	10.49	4551.56	

\* $p<.05$  \*\*\* $p<.001$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에는 사회적 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나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추후검증하여 살펴 본 결과 학업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이 중학교 2학년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운동영역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이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영역과 행동영역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아동이 중학교 2학년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자신에 대해 과대하게, 자기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동의 연령과 성에 대한 학업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학업 영역에서는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상호작용 효과는 앞에 제시된 〈그림 1〉에서 보여 주듯이 남이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학업영역에서는 자기능력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p < .05$ ), 여아도 국민학교 6학년 연령에서 다소 높아지나 중학생이 되면서 다시 학업 영역에서 자기능력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런 결과에 따라 단순 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민학교 3학년의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자신의 학업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53, p < .05$ ).

## 2.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상관관계 검증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자기 능력지각 \ 사회적 지지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학업 영역	.21***	.28***	.27***
사회적 영역	.49***	.32***	.35***
운동적 영역	.20***	.12***	.26***
신체적 영역	.20***	.23**	.21***
행동적 영역	.31***	.30***	.34***
전반적 자아가치	.33***	.36***	.36***

\*\* $p < .01$  \*\*\* $p <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교사 지지, 또래 지지, 가족 지지 세 하위 요인과 자기능력지각의 여섯하위 요인간에는 상관계수의 범위가  $r = .49(p < .001)$ 에서  $r = .12(p < .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또

래 지지 요인이 자기능력지각의 사회적 영역( $r = .49, p < .001$ )의 하위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족 지지 요인은 전반적 자아가치( $r = .36$ )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지지요인은 전반적인 자아가치( $r = .36$ )가 가족 지지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기능력 지각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 3.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유의한 영향 변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영향력을 파악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의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회귀과정에 위반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다. 회귀과정의 위반 여부를 알기 위해 먼저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2 에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잔차간의 상관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표 5〉은 사회적 지지 및 아동배경변인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유의한 영향변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 기 능 력 지 각		
	통계치	B	$\beta$	R <sup>2</sup>	F 값
아동의 사회적 지지		.69	.52	.27	143.44***
아동의 연 령		-6.78	-.21	.35	70.8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3.55	.10	.36	55.39***
durbin-watson		2.10			
상 수		31.45			

\*\*\* $p < .001$

〈표 5〉에서 보듯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 연령,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회적 지지( $\beta = .52, p < .001$ )를 높게 지각할 수록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는 연령( $\beta = -.21, p < .001$ )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beta = .10, p < .001$ ) 아동은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性に 관한 변인은 아동의 자기능력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중 2, 국 3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또래지지는 국민학교 3학년보다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는 국민학교 6학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다음이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3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지지는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자기능력지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능력지각의 6개 하위영역중 사회적 영역을 제외한 5개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간의 상관은 각각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예측하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36%, 연령 35%, 사회적 지지

27%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性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몇가지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국민학교 6학년에서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이 연령시기 정도에서 주위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로 부터 얻는 자원에 긍정적 사고와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Hunter와 Youniss(1982)가 아동기와 청소년시기 동안의 발달적 변화가 지지의 근원을 발달시킨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urman 과 Buhrmester (1985, 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아동후기가 되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성인 즉 가족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어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또래지지는 성인-아동의 관계보다는 평등적인 또래지지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볼 때 후속연구로서 각기 다른 지지원 즉 정보지지, 평가지지등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지지기능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가족에 대한 지지는 국민학교 6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중학교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아동기 시기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일관되게 지각하다가 후기 즉 청소년에 접어들면서 가족보다는 친구, 또래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함으로 인해 가족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 같다. 이는 Hunter와 Youniss(1982)의 연구와 Furman과 Buhrmester(1985, 1992)의 연구

와도 일치할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재창(1986)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지각을 보고한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있는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확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자기능력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아동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더 정확히 판단하게 된다(Harter, 1982)는 연구와 일치할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6개 하위영역 중 학업영역에서만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신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남자들이 자신의 학업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만심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도 높게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Cohen과 Will(1985)는 존경지지(esteem support)의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했을 경우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경험이나 실패에 대한 조절을 시사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개인 스스로를 방어하며 자기-존중감과 좀 더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증진시켜 결론적으로 행동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Cobb, 1976), 가족이 제공하는 존경지지는 아동이 자신의 전반적인 자아가치 즉 자신의 사람됨됨이이나 자신감과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족내에서 느끼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은 아동의 행동장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 줄 것으로 시사해 준다. 한편 또래지지는 사회적 능력 지각과 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어, 이로써 자아에 대한 판단과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킨다(Heller, Swindle & Dusenbury, 1986)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친구나 또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지각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한편 교사지지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사회적 능력지각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나 가족이 아닌 다른 성인이 제공하는 존경지지는 아동이 학업 영역에서 상관을 낮게 보고한 Dubow와 Tisak(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데 설명력이 있는 변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아동이 자아개념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김영희(1980), 김영애(1981)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에 대한 수용, 양육 태도와 방법이 심리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제공되어 아동의 자아에 대한 사고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의한 변인이 연령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연령이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한 셈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도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을 설명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

다. 이는 이은혜(1991)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 연구의 결론은 (1)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기능력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은 매우 높은 상관을 갖는다. (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했다로 정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의 역할.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1991). 아동의 인지 능률성, 동기 지향성, 사회적 지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유아교육 연구, 11, 71-89.
- 정순지(1989).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용주(1992).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학교친구, 학교외 친구,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auce, A. M., Felner, R. D., & Primavera, J. (1982).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 in ac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17-428.
- Cauce, A. M., & Strebrik, D. S. (1989). Peer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 focus for preventive efforts with youth. In L. A. Bond & B. E. Compas(Eds.), *primary prevention and promotion in the schools*(pp. 235-254). Newbury Park, CA: Sage.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Contribution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

- 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 163-172.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Manual*.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88).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i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 (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 in functions of their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6), 806-811.
- Hoffman, M. A., Ushpi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4), 307-316.
- Kon, I. S., & Losenkov, V. A. (1978). Friendship in adolescence: Values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143-155.
- Reid, M., Landesman, S., Treder, R., & Jaccard, J. (1989). "My Family and Friends": Six- to twelve-year-old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60, 896-910.
- Thompson, S. C. (1981).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Will it hurt if I can control it? *Psychological Bulletin*, 90, 89-101.
- Wolchick, S. A., Beals, J., Sandler, I. N. (1989). Mapping children's support network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D. Bell (Eds.), *Children's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N. Y.: John Wiley & Sons.